

杜谷 洪宇定の 隱遁思想과 文學世界 研究

申斗煥*

<目次>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홍우정의 작품세계 분석 |
| II. 홍우정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 V. 결론 |
| III. 홍우정의 은둔과 사상의 기저 |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杜谷 洪宇定(1593~1654)의 은둔과 문학세계를 조명한 논문이다. 두곡 홍우정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유교경전과 문학수업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는 특히 시를 잘 지었으며, 학문에도 뛰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당파 싸움에 밀려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유배되었다. 그는 丙子胡亂이 터지자 가족들을 이끌고 봉화 문수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전쟁이 끝나자 봉화 문수산 두곡에 머물렀다.

홍우정은 명나라가 망하고 淸나라가 들어서자 청나라에 항거하여 명을 계승하는 의리와 절의를 외치며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를 따라 崇禎處士를 표방하며 은거하였다. 조정에서는 그를 여러 번 벼슬에 임명했으나 그는 나아가지 않고 은둔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이러한 은둔사상은 유가의 춘추대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당시 세상의 선비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절의의 지사로 인정을 받았다.

그가 은거지에서 교유한 인물들은 모두 뜻을 같이한 인물들로 소위 ‘太白五賢’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문학적인 교류를 하며 은둔생활을 영위해온 그의 행적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가 은거지에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ilovestudent@hanmail.net

서 지은 시와 산문에는 은거의 정서가 물신 풍겨나는 작품들이 들어있다.

홍우정의 은둔의 문학세계는 중국 고대의 은거문학을 흠모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李白과 杜甫처럼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우국의 정이 드러나 있고, 인생에 대한 통한이 서려있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녹아있으며, 시국을 한탄하는 풍자가 들어 있으며, 은거생활의 고독을 노래한 서정이 들어 있다.

그의 산문에는 商山四皓나 陶淵明 같은 중국 고대의 은둔을 지향한 인물들의 전고가 풍부하며 고문의 명편을 읽는 듯 감동이 서려있다. 그는 절의를 지킨 송정처사로서 한시대의 영웅이자, 은거의 정서를 시로 표출한 위대한 문인이었다.

【주제어】 두곡 홍우정, 병자호란, 송정처사, 태백오현, 문학세계, 은둔생활

I. 문제의 제기

논어 속의 逸民 伯夷·叔齊, 許由, 商山四皓, 陶淵明, 嚴子陵 등에 비유되는 眞隱, 동방의 魯仲連, 大明의 節操를 바꾸지 않았던 崇禎處士, 인조 반정을 반대한 光海君 시대의 節士 등으로 칭송되는 杜谷崎人 洪宇定(1593~1654). 그는 누구이며, 그가 은거하고 출사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당대의 선비들은 왜 그의 은거행위를 그렇게 칭송하는가? 우리 靑史에 隱者들은 많았다. 조정이 이 사람을 등용했다면 세상이 바뀌었으리라.

이 논문은 2016년 7월 한문고전학회의 특별주제 ‘晚全堂 洪可臣과 그 후손들의 문학’이라는 기획주제에 맞추어 발표한 것이다.

洪可臣의 손자 洪宇定(1593~1654)이 살았던 시기는 대내적으로는 혼란기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세계사적인 변화의 정세 속에서 반도국가의 특성상 자주 침공을 받고 있었다. 일본의 강성한 성장은 아시아 대륙의 진출에 야망을 품고 조선을 침공하게 하였다. 임진왜란

(1592~1598)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변형시켜 놓았다. 무방비 속에서 일본의 침공을 당한 조선은 초토화 되어 함락의 위기에서 명나라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 그동안 조공을 바쳐온 조선에게 명나라는 의리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임진왜란은 명군의 참여로 조명연합군의 체제로 수습해 가고 있었다. 명나라는 조선을 침공한 일본군을 맞아 사실상 7년간의 대리전을 치르는 동안 궁정내부에서는 당파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밖에서는 농민반란이 일어나 혼란을 거듭하며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명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명·청 교체기의 1627년 정묘호란, 1637년 병자호란, 등 청나라의 침입으로 조선은 혼란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權愈(1633~1704)는 『杜谷先生文集』 서문에서 “우리는 이미 공이 살던 당시에 그를 잃었었다. 그런데 이제 또 겨우 남은 글들을 찾아내어서 이를 세상에 전하지 못한다면 옛 도리는 폐하고 말 것이니 군자의 수치일 것이다.”¹⁾라고 하였다. 이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후손들은 그를 천양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아직 그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적은 없다.

그의 은거 생활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문헌자료에 기술되어 있고, 그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 및 그 은거생활의 정취를 모은 약간의 산문과 시가 315제 400여수나 그의 문집에 남아있다. 그의 절개를 칭송하는 英祖의 致祭文을 비롯하여, 許穆의 墓碣, 李玄逸의 墓誌銘 등 그에 대한 문헌자료²⁾는 한문학사상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

1) 『杜谷集』 권1, 權愈, 「杜谷先生文集序」, “當時既失其人 今又不能陳發其遺文僅存者 使不克流於世則古道廢 君子之恥也.”

2) 『한국문집총간』 속26집, 『杜谷先生文集』에 대한 장유승의 해제를 참고하였다. 홍우정의 문집은 그가 별세한 후에 후손이 남은 유고를 수습하여 權愈에게 서문을 부탁하여 문집이 정리되었다. 그 후에 7대손 洪撰, 洪煥과 琴永烈이 간행을 주관하여 1824년 奉化 三溪書院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古3428-472), 장서각(D3B-8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만송 D1-A192),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975년 후손 洪性源이 관련 시문을 수집하여 續集으로 엮고 본집과 함께 석판으로 인행하였

이에 본고에서는 杜谷 洪宇定을 조명하여 그의 은둔사상의 기저와 그 문학세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홍우정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1. 은거 이전의 생애

홍우정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은 그 특성상 은둔 이전과 은둔 이후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洪宇定(1595~1654)의 자는 靜而, 호는 杜谷, 본관은 남양이다. 고려 때 金吾衛別將同正을 지낸 洪先幸이 鼻祖이다. 國朝에 洪瀚이 벼슬하여 吏部右侍郎에 이르렀는데 직간하다가 燕山朝 무오년(1498, 연산군4)에 죽었으니, 이분이 공의 5대조이다. 증조부 휘 洪諝은 掌苑署掌苑을 지냈고

다. 이 《중간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치암D1-A192) 등에 소장되어 있다. 문집은 5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 權愈가 지은 서문이 있다. 권1~3은 詩(307題)이다. 모두 絶句와 律詩이며 권1에 116제 140수, 권2에 109제 133수, 권3에 82제 131수가 실려 있다. 권4는 詩(8제), 賦(2), 書(4), 雜著이다. 오언율시 1제 1수, 오언고시 3제 3수, 칠언고시 4제 5수가 실려 있다. 賦는 아우 洪宇遠의 稽古堂을 소재로 지은 것과 천안의 옛 성에 올라 지은 것이다. 書의 「答蔡用九書」는 蔡聖龜가 보내준 편지와 시에 감사를 표하고 화답시를 보낸다는 내용이다. 「答李子遠書」는 李浚에게 酒色을 경계하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이다. 「答尹生勉甫書」는 지난봄에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자신의 은거는 단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궁벽한 고을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與吳賓羽書」는 謫所에 있는 吳翹에게 보낸 편지로 1650년 강계 부사 재직시 採蓼의 일로 牙山에 유배된 오빈에게 안부를 묻고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는 내용이다. 雜著에는 記(3), 序(1), 跋(1), 說(1), 識(1), 銘(1), 上樑文(1), 祭文(1)이 실려 있다. 권5는 附錄으로, 沈長世와 金宗衍이 지은 제문, 許穆이 지은 묘갈명, 李玄逸이 지은 묘지명, 李光庭이 지은 傳, 李象靖이 지은 행장이 실려 있다. 이어서 致祭文 2편, 奉安文 3편, 祝文 3편, 告由文 2편, 上樑文 2편, 焚黃文 2편이 실려 있고, 이 밖에 「尊周錄陪臣列傳」, 「贈諡教旨」, 「諡狀」, 「請諡疏」, 「遺墟碑陰識」, 「玉溜庵記」 및 시 7수 등 저자와 관련된 시문이 있다. 권미에 1823년 李野淳이 지은 跋과 1824년 7대손 洪堧이 지은 識가 있다.

領議政, 益寧府院君에 추증되었다. 조부 洪可臣은 문학과 행의로 선조 때 명망이 드러났고, 洪州牧使로 李夢鶴의 亂을 평정하였다.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렀고 右議政 寧原府院君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莊이다. 부친 洪榮은 漢城府庶尹을 지냈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모친 陽川許氏는 이조 판서 許箴의 따님이다. 만력 을미년(1595, 선조28) 11월 21일에 공을 낳았다.³⁾

할아버지 洪可臣(1541~1615)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길몽을 꾸고, 손자 중 탁월한 문장가가 날것이라는 예전을 하었는데 이후에 洪宇定이 태어났다. 홍우정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이한 재주가 예고되었다. 10세 무렵에는 이미 문장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필력이 웅장하고 시문이 뛰어난서 주변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부제학을 지냈던 그의 종조부 鹿門公 洪慶臣은 홍우정의 글을 대할 때마다 무릎을 치며 칭찬하였다고 한다. 또 사람을 잘 알아보았다는 참의 趙國賓은 홍우정의 시를 보고 넓은 국량과 탁월한 식견을 보고 장차 나라를 살릴 동량재가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홍우정은 할아버지 洪可臣의 뛰어난 문재를 이어받고 그 학문과 명성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명문집안에서 자라 어릴 적부터 유가경전과 문학수업을 하며 자라서 장래가 총망 되는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13세 때 1607년, 이해 가을 성절사로 중국에 사신 가던 崔沂(1553~1616)가 평안도 영유에서 홍우정의 아버지를 만나서 홍우정의 시를 얻어 보고 사위를 삼기로 결심 했다고 한다. 홍우정은 15세(광해군 1년)에 최기의 딸, 해주최씨 와 결혼하였다. 1616년 22세(광해군 8년)에 사마시에 합격 하였다. 이 때 고관 閔夢龍이 홍우정을 1등으로 뽑으려고 하였으나 李爾瞻이 미리 내정해 둔자에게 밀려서 2등이 되었다. 4월 해주옥사에 연루되어 崔沂가 무함을 당하여 고문을 받았고, 6월 28일에 옥사를 당하고, 가족들도 모두 죽었다. 홍우정도 구금되었다.

3) 李象靖, 『大山集』 제50권, 行狀, 「杜谷洪公行狀」

이 사실은 金尙憲이 쓴 崔沂의 「神道碑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崔沂(1553~1616)의 본관은 海州, 자는 淸源, 호는 西村 또는 雙栢堂이다.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지평, 경주 부윤,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세상에서 칭하는 循吏의 치적에다 장자의 풍모를 지녔으며 廉士의 지조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

李爾瞻과 許筠이 ‘최기가 海西 지방의 산골짜기로 도망쳐 있으면서 무리들을 모아 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는 술책을 꾸며 평상시에 꺼리고 미워하는 자들을 모두 그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朴希一과 朴以彬 등을 사주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上變하게 하였다.

여러 간당들이 최기를 억지로 승복시키고자 하여 온갖 악독한 형벌을 가한 탓에 공이 옥중에서 죽었으니, 바로 병진년(1616, 광해군8) 6월 25 일이었다.

최기는 입으로는 다른 사람의 선악을 말하는 법이 드물었고, 표리가 아주 분명하고 밝았다. 許筠과 함께 公州에 있을 적에는 그를 비루하게 보아서 예를 차리지 않았다. 그리고 韓纘男이 아직 벼슬길에 나가기 전에 그의 눈동자를 보고는 그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에 두 사람이 모두 유감을 품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었는데, 공이 화를 당한 것은 결국 이들 두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⁴⁾

홍우정은 최기의 셋째 사위이다. 홍우정도 여기에 연루되어 천안으로 유배되어 8년간의 유배생활을 하다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이 이후 홍우정은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어놓지 않고 은둔을 선택했다.

이이첨은 홍우정을 자기 문하에 두고자 사람을 보내어 화와 복으로서 협박과 회유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분노하여 홍우정을 죽이려고 하였다. 이때 판의금부부사로 있었던 閔夢龍이 이를 적극 저지하여 죽

4) 金尙憲, 『淸陰集』 제24권, 碑銘, 十首, 「觀察使崔公沂神道碑銘并序」 참조.

음을 면할 수 있었다. 元斗杓, 李澣 등의 노력으로 겨우 죽음을 면하고, 천안으로 유배 부처되었다. 7월에 홍우정이 병이 위중하여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이 기록이 왕조실록에 “죄인 洪宇定과 李穡가 병이 위중하여 보방되었다.”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28세 때인 1622년(광해군 14년), 元斗杓, 李澣 등이 仁祖反正을 모의 하면서 홍우정을 찾아와 의논하자 공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 마땅히 자네들의 목을 잘라야겠지만 그러지 못하니 나의 목을 가져가게나.”라고 하면서 목을 내밀어서 양공이 경악을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는 光海君의 신하로서 忠臣不事二君의 절개와 의리를 지킨 癸亥年 節介로 평가되었다.

1623년(인조1년) 3월 인조반정으로 천안의 유배지에서 석방 되었다. 3월 15일 목사 최기의 관작을 회복하고 이어서 추증하라고 명했다. 遺逸로 선비를 천거하라고 인조가 지시하자 모두들 홍우정을 수망으로 천거하자 공이 극구 사양했다. 인조임금의 친명으로 한 차례 과장에 나아갔다. 1624년 30세, 아버지 庶尹公의 상을 당했다. 3년 상을 마치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산수 간에 자적하였다.

1627년 33세,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넷째 아들 堧이 태어났다. 명나라 의종 즉위 崇禎1년

1629년 35세, 봉림대군의 사부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30년 36세, 大君師傅 洪宇定을 본직 그대로 제수하여 빨리 상경시키도록 하라고 독촉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31년 37세, 內資寺直長(종7품)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32년 38세, 사실이 아닌 역모사건 고변으로 심장세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懷恩君 李德仁이 상소하기를, “전 좌랑 沈長世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지난달 原州에 가 忠原 수령 宋興周를 찾아보니, 편지 한 통을 꺼내어

5) 『光海君日記[중초본]』 105권, 광해 8년 7월 14일 임오, 1번째 기사.

보여주는데 바로 趙公淑의 아들 趙世馨이 洪宇定에게 답한 편지였다. 그 속에 한 가지 말이 있는데 이르기를 전일에 이리이러하다는 일은 다시는 들은 바가 없으나 다만 당초에 懷恩 역시 그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기에, 신이 듣고서 대단히 괴이쩍게 여기었습니다.” 하였다.

국청이 청하여 臨海宮의 여러 종 및 이른바 術士란 盲人 등을 잡아다 심문하니, 모두들 어현이 앙심으로 인하여 거짓 끌어들었다고 말하자, 바로 面質하도록 하니 어현이 말과 얼굴빛이 모두 꺾이었다. 드디어 어현을 신문하니 말이 荒亂하여 마침내 사실이 없자, 요망한 말로 대중들을 현혹시킨 것으로써 그를 斬首하도록 명하였다. 哲伊·香玉·龍伊는 형벌을 받아도 자복하지 않자, 모두 沈長世·宋興周·洪宇定·洪□·李德仁·李惟馨·應玉 등과 더불어 석방하였으며, 趙公淑과 趙世馨은 귀양을 보냈는데 역모를 듣고도 아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⁶⁾

1633년 39세, 司宰監直長(종7품)을 제수 받고 상경하여 謝恩하고 돌아왔다.

1636년 42세, 후금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서 備邊司에서 공을 안주목사로 啓請하고자 하였으나 국경의 방어를 서생에게 맡길 수 없다는 異論이 있어서 중지 되었다.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남. 어머니를 모시고 아우들과 함께 영남 태백산으로 피난함. 동생은 이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존된 남인 계열 洪宇遠이다. 다른 동생 洪宇亮은 청백리로 유명하다.

인조14년(1636) 병자호란 때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가다가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집안이 대대로 벼슬해 온 가문인데 지금 나라가 위급한 때를 맞아 너희들이 나를 두고 갈 수 없기도 하지만 또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도 없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내아들 洪宇亮을 남한산성으로 가게 했다.⁷⁾

6) 『仁祖實錄』 27권, 인조10년 10월 16일 경진, 2번째 기사.

7) 『梓鄉誌』, 順興誌, 壽耆, 陽川許氏.

2. 은거이후 생활과 太白五賢

홍우정의 은거 이후의 생애는 太白五賢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소위 ‘太白五賢’으로 칭송되는 사람들은 遜遇堂 洪錫(1604~1680), 泡翁 鄭瀾(1600~1668), 潛隱 姜恰(1602~1671), 覺今堂 沈長世(1594~1660) 그리고 홍우정이다.

홍우정은 1637년 43세, 봉화현의 현저에 내려왔다. 이때 홍여정을 만났다. 강흡이 먼저 내려왔고, 뒤에 洪錫이 내려와서 강흡, 홍여정, 홍석 4인이 절친하게 지내며 산수를 누렸다. 홍우정은 전곡에 살고, 홍여정은 병현에서 살고, 공서는 楓川(楓井) 강흡의 伐田(法田)이 모두 십리 안팎이어서 서로 즐겼다. 이해 1월 30일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는 귀향을 단념하고 문수산 남쪽 기슭 뒤뜨물골(杜谷)로 들어가 은거하기로 결심했다. 杜谷이라고 호로 삼은 것은 지명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당나라 때 난리로 세상을 떠돌며 일생을 보낸 杜甫를 본받으려는 뜻도 함의 되어 있었다. 선생의 고향은 충청도 아산이었다. 다시 內資寺直長에 보임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그 후 7년 동안의 행적은 미묘하다. 태백산 속의 은거생활로 보아야 한다.

1644년 50세 인조22년, 청나라 順治 1년. 潛隱 姜恰과 함께 長松峴에 올라서 죽령을 바라보고 나라 일을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해 3월 이자성의 반란으로 명나라 수도 북경이 함락되고 황제 의종은 자살하였다. 청나라는 북경을 함락시켰다. 드디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건국되었다.

1647년 53세 인조25년 가을, 손우당 洪錫 각금당 沈長世 등과 태백산 황지를 유람하였다.

1648년 54세 김자점이 아뢰기를, "전 直長 洪宇定은 궁함을 지키는 뜻이 있는 선비입니다."하니, 상이 6품관으로 발탁하여 제수하라고 명하였다.⁸⁾

10월 21일에 공조좌랑을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때에 鄭太

和가 공을 천거하였는데 임금이 나도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속히 임용하라고 하였다.

11월 4일에 태인 현감에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1월 11일 신미 간원이 홍우정의 공조좌랑 승진과 태인현감 제수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洪宇定은 학문에는 전혀 감감하고 행동이 괴이할 뿐이니 豪俠客이라고 하면 혹 가하겠습니까만 선비라고 하는 것은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흘 사이에 郎署로 超薦시키고 이어 큰 고을에 제수했으므로 除目이 한번 내려지자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전에 공조좌랑으로 승진시킨 것과 새로 泰仁縣監에 제수한 것을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1650년 효종1년 56세 여름, 遜愚堂 洪錫, 潛隱 姜怡, 등과 함께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태백산을 두루 탐험함. 1652년 효종3년 58세, 어머니 양친 허씨 별세. 1653년 효종4년 59세, 覺今堂 沈長世가 임지 청도에서 찾아 왔다. 1655년 효종6년 61세, 司宰監注簿(종6품)에 임명되자 상경하여 謝恩하고 돌아옴.

홍우정은 태백오현들과 문필생활로 교유하며 은거의 고독을 달랬다. 당시에 뜻을 같이하던 姜澂의 후손, 홍가신이 이몽학의 난을 평정할 때 같이 했던 강덕서의 손자 姜怡, 洪汝徵, 沈義謙의 손자 沈長世, 鄭澈의 손자 鄭瀆, 洪暹의 증손 洪錫, 姜恪 등과 절친하여 이들과 함께 太白五賢 혹은 太白六隱으로 일컬어졌는데, 이들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유하였다. 이 밖에 蔡聖龜, 權尙遠, 林端, 趙又新, 金應龜 등과도 시문을 주고받은 것이 발견된다.

홍우정과 심장세는 각별한 사이였다. 홍우정은 沈長世에게 써준 「覺今堂記」는 陶淵明의 「歸去來辭」 중에서 “아직은 길을 잘못든 것이 오래지 않으니 지금이 옳고 지난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노라[實迷途其未遠 覺今是而昨非]”라는 글에서 ‘覺今’을 취한 것이다. 대저 사나이가

8) 『仁祖實錄』 49권, 인조 26년 10월 13일 갑진, 2번째 기사.

세상에 처하여 갈 길은 두 가지 길이니 出世와 退隱이다. 도연명의 살았던 栗里가 벗 심장세가 봉화 동쪽에 각금당을 지은 丹坡보다 나으란 법도 없다. 태백의 煙霞와 風月을 함께 마시고 늘그막의 여생을 즐기고 있으니 도연명 또한 이 즐거움을 알까?

봉화의 태백오현이 누리던 전원의 정취를 도연명의 정취와 비교하며 고문의 향취를 취한 기문의 명편이다. 홍우정이 태백오현들과 보낸 은거의 정취를 도연명을 추구하며 생활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홍우정은 생활 산문에도 뛰어났던 것이 증명된다.

홍우정이 써준 「可笑亭記」는 태백오현의 한사람인 洪錫의 가소정에 써준 기문이다. 무엇을可笑하는 것인가? 대답을 못하고 손만 비비고 있는 洪錫이 가소롭다고 유모어 넘치는 간결하고도 의미가 새로운 기법의 기문이다. 역시 고문 투의 문장으로 홍우정의 문장을 엿 볼만한 글이다.

「二吾堂序」 역시 태백오현 중의 한명인 姜恰의 이오당에 써준 글이다. “나의 천명을 즐기어 나의 천수를 다한다.[樂吾天以終吾年]”라는 시구 안에 ‘吾’자 두 개를 취해서 二吾堂의 이름을 심오하고 묘하게 만들었다. 홍우정은 간결한 문장으로 심오한 인생을 관조하는 사색으로 글을 인도한다. 홍우정은 태백오현들을 비롯하여 그 밖의 벗들과도 교류하면서 문필 생활로 그들의 삶을 리드해 나갔다. 홍우정이 은거생활을 하는 벗들에게 지어준 시문들은 그들의 삶을 더욱 고상하고 사색하게 만들었다.

홍우정이 써준 「六隱窩記」는 벗 金應龜의 집에 써준 기문으로 ‘육은와’는 거북이를 상징하고 있다. 거북의 생태와 蓄龜를 고찰하여 교훈이 될 만한 명구로 일관하고 있다. 살아가면서 거북처럼 경계하라는 글이 주 내용이다. 문답법을 활용한 고문투의 글로 전아한 미감이 있다.

「稽古堂記跋」은 그의 아우 洪宇遠이 지은 「稽古堂記」의 발문이다. 현액을 稽古堂이라고 한 것은 옛것을 돌아본다는 의미이다. 이에 홍우정은 옛날의 경전, 제자백가서 등을 모두 이 집에 쌓아두고 여기서 글을 읽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오늘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옛것에서 찾아서 상

고하겠다는 의미로 당의 이름 稽古堂을 더욱 새롭고 낯설게 하기를 하고 있다.

「鄭子修失杖說」은 지팡이를 잃은 鄭之羽에게 지어 준 글이다. 지팡이에 대한 銘說이다. 이 지팡이가 일본에서 건너온 유래부터 지팡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세히 나열하면서 玩物하는 태도로 쓴 글로 우이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글이다.

「宣廟御書後識」는 鄭文在가 소장한 선조의 어필을 보고 쓴 글이다. 정문제는 宮人으로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여 선조에게 이 어필을 받은 과정을 서술하여 이것이 당신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글이다.

「刀銘」은 책상에 새긴 명이다. 이글은 잠명류에 속한다. 책상이 만들어진 연유부터 해서 도를 밝히는 경전을 읽는 도구로 그 사명과 활용면을 서술하고 후일의 호사거리로 삼는다고 했다. 玩物하는 사이의 경계가 될 만한 글을 새기고 경계를 드리우는 글이다. 이 또한 고문의 향기가 나는 문체이다. 「杜谷乃城洞上梁文」과 「祭洪汝徵文」이 있다. 홍우정이 은거하며 교유한 문필 속에는 주옥같은 산문의 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써준 산문 세계는 마치 고문진보의 명편을 읽는 듯한 감명이 있다.

1656년 62세 효종 7년, 7월22일 병환으로 자리에 누움, 7월 27일 친구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심장세가 서울로 간다는 말을 듣고 송별시 세수를 지어주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임종시를 짓다가

氣聚爲生散則歸 기가 모여서 생명이 되었으니 기가 흩어지면 죽는 것
歸何長短盡同歸 죽음에 어찌 차이가 있나?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리

이 시구를 읊고 벗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을 이르라고 하였다. 태백 오현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그때는 듣기만 하였지만 차마 화답할 수가 없었다. 7월 28일에 조용히 서거했다.9)

전날 아침에 姜怡(강덕서의 손자, 이몽학의 난 평정시 홍가신과 같은 계열)이 문병하고 돌아갔다가 저녁에 위태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달려와 호상하고, 성복을 마친 후에 돌아갔다. 돌아간 뒤에 황간 현감의 임명장이 도착하였다. 그래서 그 시편이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심장세가 꿈에 홍우정을 만나서 임종시를 완성하였다.

지난 9월 5일 밤, 꿈속에 그대가 찾아와서 탄식하기를 “나의 삶이 이처럼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끝이 나고 말았구나” 하니, 내가 대답하길 “그것은 그대가 깊이 은둔하여 세상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이 언제 그대를 버린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대는 아들도 많고 손자도 많으니 어찌 복 받은 사람이 아닌가?”하였다니 그대 도한 그런 듯이 여겼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歸’자의 운을 그대가 이어서 완성시켜 줄 수 없겠는가?”하였다. 그래서 내가

朋知骨肉同歸盡 벗 친지 골육들도 모두 다 돌아가고
草草吾生獨未歸 쓸쓸히 나만 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네.

라고 그 뒤를 이었더니 그대가 말하기를 “훌륭하다. 그러나 그대가 일찍 글 짓는 일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불필요한 글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라고 하였다.¹⁰⁾

홍우정은 글자를 알면서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여, 성장하며 과거준비를 하면서도 시를 짓고, 인생의 굽이굽이를 시로 남겼으며, 죽을 때도 시를 지으며 죽었다. 누가 그를 시인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10월 17일 안동 와룡면 감애리 속칭 우무실 언덕에 묻혔다.

9) 洪承均, 『우리말로 읊긴 두곡선생문집』, 두곡선생문집역간위원회, 2013 참조.

10) 『杜谷集』 권5, 附錄, 祭文, 沈長世, “矧復屬續之前夕 乃吟 氣聚爲生散則歸 歸何長短盡同歸之句 語諸友以屬之 而在其時 忍聞以不忍和 故篇未圓 九月五日之夜 子入吾夢入 歎曰 吾生也無所爲而休矣 余答曰 子固深藏而未嘗進取於世也 世豈嘗棄子也 子多男而多孫 其非福人乎云 則子亦以爲然矣 而仍曰 歸子之韻 子可以足成乎 余以朋知骨肉同歸盡 草草吾生獨未歸之句 續之 則子曰 芻矣 而子嘗廢閣綴文 似不無剩字云矣.”

이상으로 홍우정의 생애와 교유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 홍우정의 은둔과 사상의 기저

홍우정이 살았던 당시, 북방에서는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하고, 1616년에 심양에 도읍하고 후금을 세웠다. 남방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북방에서는 1619년 명나라에 쳐들어오는 후금에 대항하기 위해 명나라는 조선에게 병력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진족까지 연합하여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유명한 深河 전투이다.

조정에서는 후금을 의식하면서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병을 보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출병을 결정했다. 광해군은 강홍립을 심하 전투에 파견했다. 강홍립은 五道元帥가 되어 부원수인 金景瑞와 함께 1만 3000여 군사를 이끌고 출병하였다. 이들 조·명 연합군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해 앞뒤에서 적을 협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작전에 차질이 생겨 富車에서 대패했다. 이때 강홍립은 광해군의 지시대로 “조선군의 출병이 부득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남은 군사를 이끌고 후금에게 항복했다. 이 전투에서 명나라는 크게 패하여 쇠퇴하게 되었고, 후금은 만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로 통하던 사신 길이 막히어, 해상을 통하여 명나라와 교통하고 있었다. 조선은 후금을 자극하게 되었고, 광해군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다. 조선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드디어는 인조반정이 일어난다. 그 후 서인정권은 친명배금정책을 내세웠다.

누르하치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을 막기 위해 1627년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후금에서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태종은 1627년 1월 3만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공 했다. 후금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1월 25일 황주

에 이르자 인조를 비롯한 신하들은 강화로,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했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후금군의 배후를 공격했으며 조선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후금군은 계속 남하하다가 후방을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과, 명을 정벌할 군사를 조선에 오랫동안 묶어둘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강화의사를 표시했고 조선이 이를 받아들여 3월 3일 화의가 성립되었다. 이 和約은 비록 치욕적인 형제의 국을 규정하기는 했지만 명과의 외교관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杜谷은 병자호란 이전 광해군 시절 장인 최기의 해주옥사 사건으로 겨우 죽음을 면하고 긴 유배생활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杜谷은 벼슬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혼란한 조선의 정계 속에서 그의 올곧은 성격이 수용되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하고는 드디어 은거를 결정하고 세상을 피해버렸다.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군신의 예'를 요구하자 조선은 이를 거부했다. 같은 해 12월 병자호란이 발생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드디어 남한산성을 나와 三田渡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행했다. 청은 조선에게 조선은 청에 대해 신의 예를 행할 것, 명에서 받은 誥命冊印을 바치고 명과의 외교를 끊으며 조선이 사용하는 명의 연호를 버릴 것, 조선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아들을 볼모로 청에 보낼 것 등 치욕적인 조건을 요구하였다.

청이 요구한 명나라와의 단절은 온 나라 선비들을 자극하였고, 명나라 연호를 쓰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반발한 조선의 사류들은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毅宗의 연호 '崇禎'을 외치며 이에 항거했다. 이리하여 조선에는 온통 '崇禎處士'를 자처하는 사류들이 별 때처럼 일어나 존명배청사상이 급물살을 타고 팽배하게 되었다. 이시기 대부분의 선비들은 송정처사를 표방하였다.

홍우정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나란히 난리를 피하여 봉화의 문수산으로 들어갔다.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난리가

끝나자 아우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홍우정은 봉화 문수산 아래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杜谷이란 마을의 샘물 곁에다가 작은 암자를 짓고 玉溜菴이라 하고 自號하기를 杜谷崎人이라 하였다. 홍우정도 송정처사를 표방하며 다음과 같은 시구를 남겼다.

大明天下無家客	대명 천하에 집 없는 나그네요
太白山中 有髮僧	태백산 산 중에 머리 기른 중이로다. ¹¹⁾

그가 은둔을 하며 남긴 시구는 세간에 명구로 유행하고 있었다. 대명의 의리를 표방한 이 시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다. 이 시구는 ‘崇禎處士’를 표방했던 조선 사류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시구에는 송정처사를 표방하고 청나라에 대항하는 춘추대의의 의리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이 시구에서 ‘大明’을 항간에서 ‘드밝은 천하’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명나라를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유명한 시구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송정처사들이 모두 다 외우는 시였다. 왜 大明이라 했는가? 이것은 병자호란 때 청이 조선에게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끊고 명나라 연호를 못 쓰게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병자호란 이후 명나라가 망하고 오랑캐로 지칭되던 청나라가 건국되자 친명배청을 표방하며 명의 마지막 황제 의종의 연호인 崇禎을 따서, 崇禎處士를 표방하며 강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낸 일련의 은자 군이 형성되었다. 그의 할아버지 홍가신도 역시 崇禎處士였다. 홍우정은 홍가신의 손자로 더 알려져 있을 정도로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홍우정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청나라에 항거하고 大명의 節操를 바꾸지 않았던 崇禎處士로 당대 선비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다. 홍우정의 은둔과 사상의 기저에는 유가사상의 처세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11) 洪承均, 『우리말로 읊긴 두곡선생문집』, 두곡선생문집역간위원회, 2013 참조.

유교에서 말하는 春秋大義 혹은 尊周節義는 尊周는 周나라 왕실을 尊崇하는 것으로, 곧 왕실을 높이고 夷狄을 물리치는 것이다. 홍우정을 비롯한 일련의 병자호란 崇禎處士들은 중화의 정통을 이은 明나라를 존숭하고 오랑캐 淸나라를 배척한 것을 춘추대의에서 나온 유가 선비들의 의리정신에서 표출된 것이다.

조선 선비들은 은거를 하면서 자주 그 사상의 기저를 『論語』, 「季氏」편에서 찾고 있다.¹²⁾ 사람들 가운데 善을 보면 그와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不善함을 보면 빨리 피하는 사람은 있는 반면에, 지금 세상에 道가 없어 은둔하여 뜻을 구하고[隱居求志], 의리를 행하며 도를 이룬[行義達道] 사람은 없음을 탄식하는 말씀이다.

공자는 道가 없는 세상에서 ‘隱居求志 行義達道’를 이룰 방안을 여러 곳에서 거론하고 있다. 『論語』, 「學而」편 1장의 ‘人不知而不慍’이나 16장의 ‘不患人之不己知’, 등은 모두 ‘隱居求志 行義達道’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홍우정은 이 사상에 입각하여 은거를 단행하였다.

일련의 선비들은 홍우정의 은거사상의 기저로 ‘逸民’을 일컫는다. 『論語』, 微子』에 “逸民으로는 백이,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하혜, 소련일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백이와 숙제일 것이다.” 유하혜와 소련에 대해 평가하자면, “그들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면서도, 말이 조리에 맞았고 행동이 깊은 사려에 맞아 그런 점들만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우중과 이일에 대해 평가하자면, “숨어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였으나 몸가짐은 깨끗했고, 세상을 버린 것도 권도에 맞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들과 다르다.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¹³⁾라고 하였다. 홍우정은 逸民의 사상을 바탕으로 肅正 처사로 행동하고 있었다.

12) 『論語』, 「季氏」,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은거하여 그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여 그 도에 통달한다.]”

13) 『論語』, 「微子」, “逸民 伯夷 叔齊 虞仲 夷逸 朱張 柳下惠 少連 子曰 不降其志 不辱其身 伯夷叔齊與 謂柳下惠少連 降志辱身矣 言中倫 行中慮 其斯而已矣 謂 虞仲夷逸 隱居放言 身中淸 廢中權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眉叟 許穆(1595~1682)은 홍우정의 墓碣에서, “공은 卓犖하고. 奇偉한 것을 좋아하여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름이 났으며 몸을 닦아 행실을 깨끗이 하였는데, 그 문장도 그러하였다.”¹⁴⁾라고 하였다. 미수는 그 문학의 풍격에 대하여 卓犖 奇偉와 자유분방함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평하였다. “공은 뛰어난 재주와 기개가 있었고, 몸을 깨끗이 하고 은둔하여 名利의 밖에 마음을 두고 도를 즐기면서 일생을 마쳤으니, 어찌 위대한 대장부가 아니겠는가.”¹⁵⁾라고 하였다. 미수는 그의 묘갈명에다가

罷牛之駕	노쇠한 소는 수레를 끌고
驥之恥	천리마가 치욕을 당했다.
高蹈尙志	고상한 뜻을 숭상하고
與物傲戲	만물과 함께 노닐었어라.
清士之介	고결한 선비의 기개여
可以廉頑夫	우둔한 자 분별이 있게 하고
可以礪濁世	흐린 세상 맑게 하리. ¹⁶⁾

라고 하여 그의 비석에 새겼다.

李象靖(1711~1781)은 「杜谷洪公行狀」에서 홍우정의 은둔사상의 기저에 대해 서술해 놓고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卓犖하고 奇偉하였으며, 志節을 지녔다. 겨우 10세에 이미 문장을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관찰사 崔沂가 공이 지은 시를 보고 혼인을 약조하여 마침내 자신의 딸을 공에게 시집보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공이 세상을 버리고 은둔하여 스스로 方外의 流派에 몸을 맡겼던 것이 아닌지 의심

14) 許穆, 『記言』 제20권, 중편, 丘墓4, 「洪靜而墓碣」, “公卓犖好奇偉 不局束 以爲名 修身潔行 其文章亦然”
 15) 許穆, 『記言』 제20권, 중편, 丘墓4, 「洪靜而墓碣」, “公有瓌才奇氣 潔身遁世 肆志於名利之外樂而終身 豈不魁然大丈夫也哉.”
 16) 許穆, 『記言』 제20권, 중편, 丘墓4, 「洪靜而墓碣」, 참조.

스러워한다. 그러나 옛사람 중에도 더러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역시 그때와 뜻이 어떠하였던가를 보고 판단할 뿐이다.

虞仲과 夷逸은 은거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여, 세속 밖에서 노니는 자와 다른 점이 거의 없었는데도 우리 夫子께서는 “몸은 깨끗함에 맞았고 벼슬하지 않은 권도에 맞았다.[身中淸 廢中權]”라고 이르고 伯夷, 叔齊, 柳下惠와 더불어 逸民의 반열로 나란히 열거하였으니, 어쩌면 이들이 쇠퇴한 세상의 志士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 공은 孝友를 돈독히 하고 제사를 정성껏 받들었으며, 권세와 이익을 멀리하고 검약을 편히 여겼으며, 부귀에 미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았으니, 이 모두가 儒者의 법도에 맞았다. 오히려 운명이 시세와 어긋나고 세상의 변고가 끝이 없어, 바지를 높이 걷어 올려 결연히 혼탁한 물에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하였으나, 임금께서 이름을 알고 조정 신하가 번갈아 천거하며, 공의 재주로 명망이 높아져 비록 君平처럼 세속에서 떠나 살고자 하여도 세상이 결코 공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다. 차라리 하찮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세상을 가벼이 여기고 마음대로 뜻을 펴면서, 은연중에 온몸으로 우주의 綱常을 지키고 出處의 대의를 붙들었으니, 그 몸이 깨끗함에 맞았고 벼슬하지 않은 권도에 맞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공이 만났던 시세와 지냈던 뜻을 생각지 않고 오직 행적에만 얽매었다면, 우중과 이일이 성인에게서 배척받은 지 오래이니 또 거기서 무엇을 취하겠는가. 공이 세상을 떠난 뒤, 사대부들이 공의 行義를 더욱 높이 우러러 향리에 위패를 모셨으나 곧 국법으로 저지되니, 사대부들이 더불어 비를 세워 그 遺墟를 표시하였다. 先朝 병인년(1746, 영조22)에, 筵臣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의 일을 임금께 아뢰어 특별히 이조 참의를 추증하였고, 병자년(1756)에는 예관을 보내어 賜祭하였는데 제문에는 당시에 쓰던 淸나라 年號를 쓰지 않았다.

영조가 내린 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자께서 일민을 일컬음은	孔稱逸民
깨끗한 몸과 높은 뜻이요	潔身高蹈
그대의 정절은	惟爾貞節
아름다운 은거와 간직한 도리로다	嘉遯懷道
한남의 비린 기운에	腥氛漢南
복색을 바꾸어	冠履倒置
바다 건너 산속으로 가서	蹈海入山

천고와 함께 하였도다	千古同歸
농사지으며 못사람과 섞여	篠蕘混跡
머리에 삿갓 쓰고 등에 우산 메었도다	戴笠擔簾
기자 나라의 기개 높은 선비요	箕壤高士
명나라 황실의 남겨진 백성이로다	明室遺民
누가 공의 괴로운 마음 알아서	孰知苦心
인륜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할 것인가	匪曰亂倫

아, 고급에 유례가 없는 공의 맑은 풍도와 곧은 절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후세의 임금을 감동시켜 이와 같이 기리고 숭앙하는 儀典을 받았겠는가.¹⁷⁾

이상정은 ‘逸民’의 사상으로 홍우정의 “몸은 깨끗함에 맞았고 벼슬하지 않음은 권도에 맞았다.[身中淸 廢中權]”고 높이 평가했다.

영조는 제문을 직접지어 홍우정의 은둔의 절의 정신을 일민의 사상에 비추어 표창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위하여 제문을 지어주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다. 영조는 홍우정의 숭정처사의 삶을 기려서 다음과 같이 극찬했다.

箕壤高士	기자 나라의 기개 높은 선비요
明室遺民	명나라 황실의 남겨진 백성이로다.

홍우정은 영조에 의해 당대 최고의 숭정처사로서 그 절의를 인정받았다. 홍우정의 부인 최씨도 부덕을 지닌 명문가의 여인이었다. 그의 婦德은 유자의 아내로서 그 도리가 마땅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니, 홍우정의 평가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임진년(1652, 효종3) 봄에 허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판서공의 묘를 옮겨 합장하려 하였는데, 부인이 마침 61세였는데도 관을 바꿀 때의 衣衾을 손수 지으려 하자 여러 자식들이 말하기를, “집안에 바느질할 사람이 많은데 어찌 고생을

17) 李象靖, 『大山集』 제50권, 行狀, 「杜谷洪公行狀」

사서 하려 하십니까.” 하자, 부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하기를, “先舅께서 살아 계실 때 매 시절마다 저고리와 바지를 지어 드렸는데 몸에 맞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지금 세상을 떠나신 지 30년이 지났으나 항상 옷 한 벌 더 해 드리지 못한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마침 지금 壽衣를 바꾸게 되었으니, 진실로 나의 정을 다 바쳐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나이가 많다고 하여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感泣하였다.

계축년(1673, 현종14) 2월에 부인이 허 부인의 기제를 친히 지내는 날에 감기로 인하여 설사와 통증이 심하였다. 이때 그 집에서 장차 祖廟에 제사 지내려 하면서 술 빛을 재료를 방에 주었는데, 부인이 설사할 때마다 부축받아 밖으로 나가니, 자식들이 청하기를, “어머니의 병이 심하시니 찬바람을 쐬어 병이 심해질까 염려됩니다. 조금 편안히 계십시오.” 하자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한 가닥 숨이 남아 있으니 어찌 祭需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하고 즉시 일어나 부축받고 나갔는데, 미처 자리에 돌아오기 전에 운명하였으니, 향년 82세였다. 그 해 5월 2일에 안동부 북쪽에 있는 道林山 아래에 장사 지냈는데, 원외공의 묘와 언덕은 다르지만 같은 골짜기이다. 그 후 8년 뒤인 경신년(1680, 숙종6) 윤8월 18일에 卯向의 언덕에 이장하여 비로소 합장하였다.

옛사람에 비해도 짝을 찾기 어려운데	昔固寡儔
지금 세상에 그 누가 아름다움을 짝하라	今孰與畵
명을 지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銘昭厥美
후손에게 끼치는 복을 도타이 하노라	以篤嗣慶 ¹⁸⁾

葛庵 李玄逸(1627~1704)은 홍우정의 은둔은 그의 부인의 이해 속에 진행되고 독려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朱夫子가 말하기를, ‘晉나라와 宋나라의 인물은 비록 淸高함을 숭상한다고 하지만 모두 관직을 구하는 것이었고, 오직 陶淵明만이 참으로 벼슬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였는데, 공의 風節 또한 도연명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¹⁹⁾

18) 李玄逸, 『葛庵集』 제25권, 墓誌銘, 「令人崔氏墓誌銘」

19) 李玄逸, 『葛庵集』 제25권, 墓誌銘, 「朝散大夫行工曹佐郎洪公墓誌銘」, “朱夫子有言 晉宋人物 雖曰尙淸高 然箇箇要官職 獨陶淵明 眞箇是不要 唯公風節 亦可以無愧矣”

라고 하여 홍우정의 은둔을 도연명 ‘眞隱’ 사상에 비유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대제학 權愈(1633~1704)가 쓴 「두곡선생문집서」에서 “杜谷은 광해군 때 飛禍(李爾瞻에게 당한 화) 해주옥사를 만나 겨우 죽음을 면한 뒤에 세상에 대한 생각을 끊고 조용히 산택을 찾아 유람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⁰⁾라고 하여 은둔의 이유를 찾고 있다.

대산 이상정은 홍우정의 은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유독 바위 구멍 사이에 졸졸 흐르는 샘물에 연연하여 떠나지 못하고, 곁에 집을 짓고 이 뜻을 취하여 그 집의 이름으로 걸었으니 또 어찌면 그리 위축되어 스스로 작아졌는가? 아아, 한 가닥 작은 물줄기가 하늘에 이를 정도로 커지는 것이며, 광대한 江漢도 근원은 岷嶺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처지에 구애되고 과거의 자취에 막혀서 그 크기만을 보고서 기뻐하고 싫어한다. 그러나 달관한 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작은 것에 나아가서 그것이 나중에 크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나는 데 따라 즐길 뿐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는다. 곧 한 가닥 작은 물줄기가 넘쳐흘러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큰 강함이 된다는 것을 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맑은 물줄기를 희롱하는 홍취가 바로 전일의 ‘江月五更’과 ‘山河萬里’를 읊던 마음이니, 눈앞의 외물은 변화함이 있으나 나의 즐거움은 어디나 없는 곳이 없다. 나는 이 치로써 볼 줄 알 뿐이니, 또 어찌 사물의 대소가 있음을 알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물을 구경하는 데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원천에서 보려는 것은 근본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산 아래로 샘물이 솟아 나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다가 깊은 못에 멈추면 맑디맑아서 하늘을 비추고, 정결하고 고요하면 광채를 빛내며 옥처럼 윤택하다. 그를 보고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며 덕을 기른다.’라는 것을 이루고, 그를 체득하여 智者의 즐거움을 배운다면 鳶飛魚躍의 이치와 天光雲影이 배회하는 묘리가 모두 여기에서 얻어질 것이니, 그렇다면 선생이 연연하며 스스로 호로 삼은 뜻이 아마도 여기에서 나왔으리라.

아아, 선생의 뜻 또한 슬퍼할 만하다. 당시에 누르하치가 난을 일으켜 중국이 멸망하였으므로 오랑캐 천지가 된 대지와 산하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20) 『杜谷先生文集』 권1, 權愈, 「杜谷先生文集序」, “光海時 遭飛禍僅脫死 遂絕意於世 默爾遊求山澤”

그런데 이 조그만 임천이 홀로 大明의 명분을 보전하고 있었으니, 그 위에서 손과 얼굴을 씻으며 사는 것은 곧 潁水로 귀를 씻은 許由의 뜻이요, 그 곁에서 생활하는 것은 곧 桐江에 낚싯대를 드리운 子陵의 기풍이었다. 옛날 逸民과 隱者의 무리 중에 혹 하수를 건너가거나 바다의 섬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자도 있었지만, 이들은 단지 자신의 몸만 깨끗이 하여 어지러운 지역을 떠난 것일 뿐이지 名教에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

그런데 선생은 바다 건너 먼 지역의 신민으로서, 匪風下泉의 感傷을 금치 못하여 때로 강개하고 원통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탄식하고 노래하는 중에 드러난 것은 근심과 울분에 찬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공이 조그마한 몸으로 천하 綱常의 책임을 맡았으니, 이 한 척 남짓한 샘이 장차 魯仲連의 바다와 그 깊이와 넓이를 같이한 것이다. 그런즉 선생의 뜻은 진실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연히 벗어난 것이다. 혹자가 작은 샘과 골짜기에 마음을 붙이고 저 혼자 교만한 체한 것이라 여긴다면, 선생을 아는 수준이 얕은 것이다.

선생이 돌아가고 집도 폐허가 된 지 몇 년이 되었다. 후손들이 선생의 의를 사모하여 그 옆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나라의 제도에 구애되어 그 정성을 펼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옛터에 집을 지었는데 지붕의 띠풀을 기와로 바꾸고 眉叟 許文正公이 篆字로 쓴 편액을 걸고, 나에게 그 일을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돌아보건대 불민한 내가 어찌 이 부탁을 맡기에 충분하겠는가마는 삼가 그간에 이름을 의탁하기를 바라고 선생을 존경하여 모시고자 하던 소원을 담아 마침내 사양하지 않고 기문을 쓰고 이어서 마음에 느낀 바를 이와 같이 적는다.²¹⁾

이 글에서 이상정은 홍우정이 두곡의 샘물가에 은거한 것을 맹자의 ‘觀瀾’에 비견하여 두곡의 은거를 찬양하였다. 주역 蒙卦의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며 덕을 기른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그를 체득하여 智者의 즐거움을 배운다면 鳶飛魚躍의 이치와 天光雲影이 배회하는 묘리가 모두 여기에서 얻어질 것이라고 하여, 시경의 정신을 드러내었으니, 그렇다면 선생이 연연하며 스스로 호로 삼은 뜻이 아마도 여기에서 나왔으리라. 이상정은 두곡이란 호에는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보았다.

21) 李象靖, 『大山集』 제44권, 記, 「玉溜庵記」, 庚寅(1770, 영조46)

그 편역을 당대 명필 眉叟 許穆(1595~1682)이 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정은 홍우정을 許由, 嚴子陵, 옛날 逸民과 隱者의 무리, 魯仲連 등에 비유하며, 은거의 사상과 송정처사의 선비적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英祖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元景夏가 말하기를, "洪宇定은 영남의 節士입니다. 병자호란을 당한 이후 태백산 속에 은거하여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하여도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으므로, 영남의 人士가 오늘날까지도 '崇禎處士'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의 절의는 매우 卓異하니, 포장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고 보니 매우 가당한 일이다. 해당 조로 하여금 증직을 내리고 그 자손을 錄用하도록 하라."하였다.²²⁾

홍우정은 영남의 선비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영남의 節士로 일컬어지고, 송정처사로서 찬양받고 있다고 하였다. 향산 이만도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廣初 李中業(1863~1921)은 조선말기 유학자가 홍우정 선생의 묘소를 지나다가 시를 지어서 골짜기 입구의 석벽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고 한다.

「過杜谷洪先生墓題洞門石壁 [두곡 홍우정 선생의 묘소를 지나며 골짜기 석벽에 쓰다]

西風八月憶皇明	가을바람 부는 팔월에 명나라를 생각하네
滿地妖氛苦未晴	땅에 가득 요망한 기운 견히지 않았도다.
灑却千秋不盡淚	천년동안 눈물을 뿌려도 다하지 않으니
荒碑無語碧苔生	거친 비석에 말없이 푸른 이끼만 생겨나네. ²³⁾

이 시의 내용은 홍우정의 '大明天下無家客 太白山中有髮僧'이란 시구를 의식하여 지었다. 여기에서도 청나라에 항거한 대명의리의 송정처사

22) 『英祖實錄』 64권, 영조 22년 8월 22일 을유, 4번째 기사.

23) 洪承均, 『우리말로 읊긴 두곡선생문집』, 두곡선생문집역간위원회, 2013.

를 지향한다. 땅에 가득 청나라 오랑캐의 요망한 기운이 괴롭게도 아직 건히지 않았다. 천년을 뿌려도 다하지 않으니 거친 비석에는 푸른 이끼만 선생의 지조마냥 돌아난다는 뜻으로 푸른 이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시에서도 홍우정의 은거 이유인 대명의리 崇禎處士를 강조하고 있다. 홍우정은 구한말까지도 영남선비들에 의해서 송정처사로서 그 기림을 받았다.

IV. 洪宇定の 作品世界 分析

1. 홍우정의 문학론

갈암 이현일은 홍우정은 “성장하면서 文辭가 雄健하고 奇古하여, 당대에 문단의 으뜸가는 名公들이 모두들 탄복하고 칭찬하기를, 文字가 뛰어나게 훌륭한 것이 筆墨의 수단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넓은 도량과 絶倫한 식견이 장차 뒷날 나라를 살릴 숨씨이다. 故 관찰사 崔沂가 한 번 보고 대단하게 여겨 자기 딸을 시집보냈다.”²⁴⁾ 라고 하였다. 홍우정은 문학적인 자질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權愈는 일찍이 “사람들 속에 섞이다 보면 자연 사물과의 촉감이 없을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또 이를 시와 글로 발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기위하고 초탈한 기상은 더러 주제를 선택한 곳에 간간이 보이고 우분하여 감개한 뜻은 가끔 情曲을 읊어 형상화한 곳에 드러난다. 그 발상의 실마리를 살펴보면 참으로 有爲한 말을 하려는 자라면 그 표현의 다하지 않는 부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²⁵⁾라

24) 李玄逸, 『葛庵集』 제25권, 墓誌銘, 「朝散大夫行工曹佐郎洪公墓誌銘」, “比長爲文辭 雄健奇古 一時名公號立 輒騷壇者 莫不歎服稱賞 以爲不惟文字奇偉 非筆墨蹊逕所及 其廣度絶識 將爲異日活國手段云 故觀察使崔公沂一見奇之 歸以其子”

25) 『杜谷先生文集』 권1, 權愈, 「杜谷先生文集序」, “然羣於人也 不得不觸事物 不得

고 하여, 두곡 선생의 문학적 경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필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논하였다.

權愈는 “공은 구차하게 의견을 내세워서 후세에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으므로 그 글을 께매고 짜 맞추고 꼼꼼하게 운율을 따지거나 고상하게 문구를 다듬어서 공교롭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정신을 소모하면서 많은 시편을 지으려고도 하지 않았다.”²⁶⁾라고 하여 그의 문학적 경향에 대해 숨기려는 뜻이 강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시에 대해서는 “俊發하고 瓌奇하여 畵色하지 않으며 측은하여 옛 시와 같은 맛이 있다. 그리고 산문은 시에 비하여 더욱 적으나 체제가 簡潔 明瞭하고 법도가 있어서 옛 사람이 경계한 도리를 터득하였다. 그 굽이쳐 꺾이는 문장의 飄逸한 정신이나 성색의 감각을 벗어난 마음의 표상은 모두 그 사람됨을 가히 엿 볼 수 있는 것들로서, 이 쇠미한 말세의 선비들을 충분히 감발하여 흥기하게 할 만한 것들이다.”²⁷⁾라고 평하여 그의 문학적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권유는 이렇게 홍우정의 문학적 경향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다.

권유가 언급한 “혼란한 시대에 처하여 지은 것이 있으면 곧 태워버렸으니 당시의 화란을 면하려는 때문이었다. 평생에 저술한 것이 이미 적은데다가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²⁸⁾라고 하였다.

이상정도 “공은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간간히 시를 지었으나 그때마다 버려서 거두지 않았으므로 단지 몇 권의 책이 집에 간직되어 있을

不發之詩文 而奇偉倣儼之氣 或選義而間見 憂憤感慨之意 或詠情而洒形 察乎其緒 有言者可以知其言之所不至也”

- 26) 『杜谷集』 권1, 權愈, 「杜谷先生文集序」, “不作苟見 不求聞於後世 故未嘗羸埽箴纓 細比律度 雕潤章句 以求工以譁衆 亦未嘗蔽精神而博營篇什”
- 27) 『杜谷集』 권1, 權愈, 「杜谷先生文集序」, “其詩俊發而瓌奇不窘滯 有惻隱古詩之義 其文視詩尤小 然體裁簡亮 有典則 得古人告戒之道 若其轉注間 神思聲采外意象 殆若可以觀其人者 而有足感起衰世士”
- 28) 『杜谷集』 권1, 權愈, 「杜谷先生文集序」, “其處昏亂之世 凡有作 輒焚之 所以免時難也 以此平生著述既小而存者無幾”

뿐이다.”²⁹⁾ 라고 하였다. 권유가 말했듯 “옛날의 일민은 그 몸을 숨김이 있었으나, 다행히 한두 편이 세상에 남아서 후인들에게 애송되게 되었던 것이다”³⁰⁾ 그러니 나라 잃은 울분 때문에 승정처사를 표방하며 은거한 사람의 시가 너무 많은 것도 眞隱의 성격을 벗어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홍우정의 시문은 더욱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시에는 한이 서려 있었고, 우국의 정과 신세의 한탄,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이별의 아픔과 고독이 봉화 문수산 두곡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그의 시문에 대한 미학을 수놓는다.

그가 머문 두곡은 때로는 도연명의 고리이다가, 엄자릉의 ‘동강 칠리탄’이다가, 두보의 ‘悲秋’이다가, 세상과 등진 상산사호의 깊은 산골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은둔의 사상과 미학의 기저에는 춘추의 의리관이 바탕이 된 유학이 있었으며, 중국 고대의 은둔한 인물들의 깊은 사상에서 우리나라의 시인들이 그의 사상과 문학세계의 기저를 이룬다.

심장세는 홍우정의 풍격에 대해 ‘卓犖飄逸’이라고 했다. 우뚝 솟은 자질로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표표히 세상을 떠도는 성격으로 규정했다. 또 ‘涵泓演迤’라고 하여 학문과 사상의 연원이 깊고 풍부하여 박식한 지식인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미수 허목은 그의 묘갈명에서 “공은 재주가 출중하고 특이한 것을 좋아하여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름이 났으며 몸을 닦아 행실을 깨끗이 하였는데, 그 문장도 그러하였다.”³¹⁾라고 하였다. 홍우정의 문학세계는 ‘卓犖飄逸’의 미학으로 그 풍격이 규정되었다.

李象靖은 「玉溜庵記」에서 “玉溜庵은 文殊山 아래 杜谷村에 있으니,

29) 李象靖, 『大山集』 제50권, 行狀, 「杜谷洪公行狀」

30) 『杜谷集』 권1, 權愈, 「杜谷先生文集序」, “古之逸民 有其身隱而幸而一二篇出於世 爲後人之所愛玩誦詠者”

31) 許穆, 『眉叟記言』 제20권, 丘墓4, 「洪靜而碣」, “公卓犖好奇偉 不局束 以爲名 修身潔行 其文章亦然”

바로 洪先生이 세상을 피해 여생을 의탁하신 곳이다. 선생은 경제의 기재를 지니고도 세상을 경시하고 뜻대로 하여 조정에서 관직을 제수하였는데도 나아가지 않고 명산대천을 두루 찾아다녔다. 일찍이 ‘江月五更’이라는 명구와 ‘山河萬里’라는 시구를 남겼는데, 그 회포와 운치는 곧장 조물주와 더불어 세상 밖에서 노닐기를 기약하고 세상 보기를 흠탕물이나 개미 언덕처럼 여겨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이상정이 칭송한 「江月五更」이란 시를 살펴본다. 이 시는 성호 이익의 『星湖僊說』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斯文 洪宇定이 淸風고을의 寒碧樓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우주 사이 한 사내대장부가	宇宙一男子
청풍 한벽루에 오르노라	淸風寒碧樓
난간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니	臨軒發長嘯
강에 비치는 달은 오경의 가을이더라	江月五更秋

그 높이 뛰어나서 엮매이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그 뒤에 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대명의 천하에 집 없는 나그네요	大明天下無家客
태백산 산중에 머리 달린 중이로세	太白山中有髮僧

그리고 경상도로 들어가 머물러 살며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자손은 順興에 산다.³²⁾

성호 이익이 이 시를 언급할 정도로 이 시는 홍우정의 시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시이다. 이 시는 당대의 문사들에게 널리 알려진 시였다.

32) 李瀼, 『星湖僊說』 제30권, 詩文門, 「洪宇定詩」.

홍우정은 시에 뛰어난 것이 이와 같았다. 홍우정은 예민한 정신으로 시대의 모순을 꿰뚫어보았으며 탁월한 시적 능력으로 시대의 비장함을 형상화했다. 이 시는 두보의 「등악양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杜甫, 登岳陽樓

昔聞洞庭水	옛 날 동정호에 대하여 들었지만
今上岳陽樓	오늘에야 드디어 악양루에 올랐네.
吳楚東南坼	오와 초는 동쪽 남쪽 갈라져 있었고
乾坤日夜浮	하늘과 땅이 밤낮 망망한 물 위에 떠 있네.
親朋無一字	친지 친구에게조차 소식 한 자 없고
老去有孤舟	늙어가며 오직 외로운 배 한 척 .
戎馬關山北	북쪽에선 아직도 전쟁이 한창인데
憑軒涕泗流	난간에 기대어 하염없이 통곡하노라.

두보는 악양루에 올라 동정호를 바라보며 향수와 우국의 정을 노래했고, 杜谷 洪宇定은 청풍 한벽루에 올라 두보의 등악양루 시를 의식하며 강호를 읊었다. 두보의 시에 표출된 강렬한 현실인식과 우국애민의 충절은 그를 유가지식인의 전형으로 기억되게 했다.

杜谷이란 지명에 ‘杜’자를 새기고 중의하여 두보의 향기를 머금게 호를 지었던 것은 아닐까? 杜谷의 시에는 두보 시의 정취가 묘하게도 함의되어 있다. 전란에 휩싸인 국토라던가, 정치 없이 떠도는 은자의 고독, 가난과 고통, 우국의 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시적 정황이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시를 사랑한 홍우정의 시학에도 그 영향관계가 감지된다. 이것은 홍우정의 다음의 시구에서도 확인된다.

吟詩雖愛杜	시는 비록 두보를 사랑하지만
學禮愧趨庭	예절을 배운 것은 鯉에게 부끄럽다. ³³⁾

33) 『杜谷集』 권4, 「詠懷十韻」

홍우정은 특히 두보의 「등악양루」시를 좋아 했던 것 같다.

大山 李象靖(1711~1781)이 언급한 ‘山河萬里’는 다음 시이다.

地負山河萬里雪	땅은 산하 만리 눈을 지고 있고
天嘯西北一箕風	하늘은 서북의 비바람을 불어댄다.
行人已盡斜陽外	행인 자취 벌써 끊긴 석양 너머에
獨策玄黃猶向東	홀로 천지를 채찍질하여 동쪽을 향하네. ³⁴⁾

홍우정은 눈 덮인 국토 산하를 오랑캐에게 시름을 당하는 조국의 모습으로 형상화 하였다. 서북의 일 기풍은 오랑캐 청나라를 가리키며 병자호란을 연상하게 한다. 명나라의 멸망을 문명의 종말로 인식하고 있다. 명나라를 오가던 행인들은 이미 끊어지고 망한 명나라 오랑캐 세상에서 캄캄한 어둠에서 동쪽을 향해 홀로 채찍질하는 것은 작가 자신이다. 동쪽은 우리나라이다. 저 오랑캐의 문화를 거부하고 문명의 아침을 다시 맞이하고자 한다.

陳澹가 금나라로 사신가면서 지었던 「奉使入金」의 “서쪽 중국 이미 삭막해졌고, 북쪽 방책 오히려 몽매하기만. 앉아서 문명의 아침 기다리나니, 하늘 동쪽 해가 붉게 오르려 하네.[西華已蕭索 北寨尙昏蒙 坐待文明朝 天東日欲紅]”과도 그 시상이 일맥상통한다.

홍우정은 난세에 지어진 唐詩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은거생활의 흥금을 비교해 보고 있다.

白也仙曹謫	이백은 신선세계에서 귀양 와서
昏昏麴蘖沈	술에 취해서 세상을 보냈다네.
地平呼作席	평탄한 대지를 침대로 삼고
天濶命爲衾	넓은 하늘을 이불로 삼더라.
未識一身小	한 몸이 작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誰知千恨深	누가 천 가지 한이 깊은 줄 알리오.

34) 『杜谷集』 권1, 「道中吟」

平生杜陵老 두보는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며
飄泊每孤吟 매양 고독하게 시만 읊었다지.³⁵⁾

두곡 홍우정은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잔인한 참상을 당해 보았다. 그는 은거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이백이 귀양 온 신선처럼 살다간 것을 상기해 보며 평생을 시와 술로 살아가며 이백처럼 살아갈 삶도 꿈꿔보고, 평생을 우국의 정과 고향 잃은 고독을 노래하며 두보처럼 떠돌 것도 생각해 본다. 이 양자 사이에서 시를 벗삼아 한세상을 은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홍우정은 봉화 태백산의 자연미에 심취하여 그 은거의 정취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坐則吟詩臥則睡	앉으면 시를 읊고 누우면 잠을 자고
孤村永日小齋清	산촌의 오막살이 종일토록 한가로워
庭前綠樹流鶯語	뜰 앞 숲에 흐르는 꾀꼬리 소리는
不換錦張絲管聲	세도가의 관현악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³⁶⁾

홍우정은 은거의 志向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시 짓는 일로 소일하고 있었다.

後漢때 嚴子陵(嚴光)은 후한 光武帝와 동문수학한 사이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하자 이름을 바꾸고 은거하였다. 광무제가 임광의 현명함을 흠모하여 그의 초상화를 그려 찾도록 했지만 桐江에 낚시를 드리우고 桐江의 칠리탄은 삼공과도 바꾸지 않는다[不換三公七里灘]고 했다. 嚴光은 光武帝와 어려서부터 절친한 사이였다. 광무제가 천자가 되자 諫議大夫에 제수했는데, 나오지 않고 富春山에 은둔하여 농사를 짓고 낚시하며 생을 마쳤다.³⁷⁾

35) 『杜谷集』 권3, 「志士二首」
36) 『杜谷集』 권1, 「偶吟」
37) 『後漢書』 권83, 逸民列傳, 嚴光

宋나라 戴復古가 後漢의 隱士 嚴子陵의 고사를 소재로 읊은 시 「釣臺」에

萬事無心一釣竿	세상만사 욕심 없이 낚싯대 하나 뿐
三公不換此江山	삼공의 자리도 이 강산과 바꾸지 않으리.
平生誤識劉文叔	평소 광무제를 잘못 알고 지낸 탓에
惹起虛名滿世間	세상 가득 허명을 야기했을 뿐이랴오. ³⁸⁾

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시에서도 아무 욕심 없이 산속에 묻혀서 은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저 동강 칠리탄에 몸을 숨기고 도도하게 세상을 희롱했던 엄자릉처럼 숲속 피꼬리 울음소리 金張같은 공신세족의 관현악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은둔의 길을 간다고 표현한 것이다. 金張이란 한 나라 때 功臣世族인 金日磾 와 張湯을 가리킨다. 金日磾 집안은 武帝 때부터 平帝 때까지 7대가 內侍 벼슬을 지냈고 張湯의 자손은 宣帝元帝 이후 侍中과 中常侍를 지낸 사람이 10여 인이나 되었다. 엄자릉은 동강 칠리탄을 삼공자리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고, 홍우정은 봉화 태백산 아래 두곡을 어떤 화려한 부귀영화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홍우정은 태백산 자연미를 새롭게 발견해 가고 있었다. 홍우정은 이 속에서 도연명처럼 소박한 삶을 살면서 초탈과 달관의 즐박미를 추구하고 있었다.

2. 홍우정의 시세계 분석

1) 고독과 이별의 정한

茫茫天地間吾軀	망망한 천지간에 나의 이 한 몸
利義交爭肥與羶	見利思義와 싸우면서 살찌고 또 여윈다

38) 『石屏詩集』 권6

蘊玉自甘藏一壑
揚名何必長千夫
山童只解懷梨栗
荊婦維知怨賦租
階有竹君罇有酒
等閒時序等閒偷

옥돌이 스스로 즐겨 산골짜기에 저장되듯
양명은 하필이면 못 사람들의 대장이어야 하나
아이는 다만 배와 밤만 생각하고
힐벗은 아내는 세금만 원망할 줄 안다
계단엔 대나무가 있고 향아리엔 술이 가득
한가로운 세월 따라 한가롭게 살아가세³⁹⁾

두곡은 늘 고독을 노래한다. 우주 간에 한 몸, 아니면 천지간에 한 몸 그의 고독은 은자의 고독이다. 두보가 천지간에 나 홀로 느끼던 그 고독과 유사해 보인다. 仁義와 利益 사이의 투쟁이 곧 선비의 삶이자 수양이다. 그의 시 전체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유교경전의 의리사상이다. 아이들은 도연명의 아이처럼 공부는 하지 않고 배와 밤만 생각하고, 아내는 세금 낼 걱정에 한숨짓는다. 도연명처럼 살아가는 守拙의 정취가 眞隱의 술 속에 한가롭다. 杜谷은 산속에서 도연명처럼 拙朴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홍우정은 종종 고독을 느끼며 친구들과 끊어진 인연들에 상심하며 시를 읊조리곤 하였다.

地僻交遊絕往還
契深風月與雲間
極知名利塵埃裏
且寄生涯林壑間
陶令酒杯遺世累
劉安丹鼎做仙班
清狂自是游方外
只愧纔窺管豹斑

지세가 궁벽하니 교유가 끊어지고
인연 깊은 풍월이 구름같이 한가롭네
명리가 진에 속에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또한 생애를 임간에 맡겼노라
도연명은 술잔 속에 세상근심 잊었고
유안은 단약을 볶으며 신선이 되었다네
청광이야 본래부터 방외에 노니는 것
다만 부끄러운 것은 나의 부족한 안목이라오⁴⁰⁾

39) 『杜谷集』 권1, 「漫吟二首」 중 첫째 시.

40) 『杜谷集』 권1, 「漫吟二首」 중 둘째 시.

두곡은 종종 고독을 느끼며 한가로움과 고독 속에서 갈등을 느낀다. 名利가 속세에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도연명처럼 술잔을 기울이고 시를 지으면서 역사 속에서 격정적으로 노닌 전고들을 살피며 淸狂의 미학을 넘본다. 우리나라에서 淸狂은 일찍이 김시습이 방외에서 격정적으로 노닐던 풍격이었다. 홍우정도 미친 듯이 춤추고 노래하며 세상 밖에서 淸狂의 풍류를 즐겨보고 싶었다.

鼠肝蟲臂反三隅	하찮은 것들이 세 모퉁이를 돌이키니
成毀難逃大冶鑪	성패는 대장간 벗어나 도망가기 어렵네
俯仰自憐蝸室在	천지간에 가련한 달팽이집에 살아가니
寬閒方覺外膠無	외부의 유혹 없어서 한가로움을 깨닫네
窓臨瀾野茫茫遠	창을 열면 넓은 벌판 아득하게 펼쳐지고
簷宿歸雲片片孤	처마 밑에 뭉개구름이 조각조각 떠돈다
客至莫辭留取醉	손님이 오면 사양 말고 실컷 마시고
樽空更與細君圖	술동이 비었으면 아내에게 말해보리 ⁴¹⁾

‘鼠肝蟲臂’는 莊子 大宗師에 “너를 쥐의 간으로 만들어 주랴, 너를 벌레의 팔로 만들어 주랴.”라는 것에서 온 말로 하찮은 것을 의미하며,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산속의 하찮은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성공과 실패는 크게 보면 하나의 큰 대장간을 벗어나기 어렵다. 초려에 삼고하러 오는 사람도 없으니 바야흐로 한가로움을 마음껏 느낀다. 두곡은 소동파의 적벽부처럼 술을 마시고 뜻 가는대로 마음껏 살아가리라고 다짐한다. 시의 말미에 ‘술이 없으면 아내에게 부탁해 보겠다’는 소동파의 시구처럼. 두곡은 세상을 등지고 한가로움에 살아가면서 혼탁한 세상에 벼슬하기 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은거의 정한을 달래며 眞隱의 이름으로 살기를 바란다.

41) 『杜谷集』 권1, 「漫吟二首」

般般梗塞事違心 한 걸 같이 비뚤어지는 일 마음과 어긋나
 冷夜寒衾一恨深 찬 밤 이불위에 한이 쌓인다.⁴²⁾

홍우정은 은거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기만 한다. 두곡은 ‘쓸쓸한 밤 차가운 이불에 한이 쌓인다.’라고 당시의 생활상을 시로 형상화했다. 두곡은 은거 생활을 하며 자기의 생애를 돌아다보며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었다. 두곡의 시에는 통한을 노래한 것이 많다.

塵世百年歡樂少 티끌세상 한평생에 즐거움이 얼마던가
 摧腸祇自有分離 창자를 에이는 이별의 슬픔이라.⁴³⁾

난리 때문에 이별하는 그 정한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가? 속세에 만나고 이별하는 것이 세상사라지만 두곡에게는 이별의 아픔이 남다르게 다가온다. 은거란 것은 모든 것과의 이별을 뜻한다. 이 이별들을 생각하니 창자에 에이는 이별의 아픔과 고독이 아프게 다가온다.

두곡의 시에는 고독이 몸부림치고 이별의 정한이 창자를 에이게 한다. 그는 자주 은거생활 속에서 일어나 한을 노래한다.

2) 우국의 정과 현실 풍자

홍우정은 우국의 정을 자주 북방지역과 변방지역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回首北天風色暗 머리 돌려 북쪽하늘 바라보니 풍색이 어둡고나
 洛江波浪想顛狂 한강의 파랑이 뒤숭숭 하리라.⁴⁴⁾

두곡은 가끔 조정을 생각하며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오랑캐들 세상

42) 『杜谷集』 권1, 「漫吟二首」

43) 『杜谷集』 권1, 「漫吟二首」

44) 『杜谷集』 권1, 「愁來」

의 문명의 쇠퇴가 가져올 황폐한 문화를 생각하며 마음아파 한다. 한양의 조정도 그 때문에 번거로울 것이라고 상상하고 있다. 두곡에게 우국의 정이 사무쳐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어느 날 괴이한 바람이 불고 기상의 이변이 생기자 우국의 불길한 징조로 감지하고 다음과 같이 시를 썼다.

怪風號起海波翻	괴이한 바람 몰아치고 파도가 회변득이네
萬竅齊咬地爲掀	천지가 온통 울부짖으며 땅이 뒤집히는구나.
百日無光沈噎色	태양도 빛을 잃고 세상이 온통 컴컴한데
病身多怯杜蓬門	병든 몸 겁이 많아 봉창문을 닫아건다.
柰何茅屋三重卷	어찌라고 띠 이은 지붕을 거둬 말아올리나
幸是香醪一斗罇	다행히 향기 나는 막걸리 한 말에 있다오.
鱸燕麝蘭方寸靜	화로에 향을 불사르니 마음이 편하다오
可憐今日此窩存	가련구나 오늘 이 오두막이 있구려. 45)

괴이한 바람이 불길한 병자호란을 걱정하며, 천지가 온통 울부짖는 우국의 정으로 형상화한다. 괴이한 바람이 일으킬 시적 모티브는 청나라가 지배하는 끔찍하고 암울한 세상의 혼란이다. 이 불길한 예감은 百尺竿頭의 위태함과 風前燈火 같은 위급함으로 국운을 걱정하는 우국의 정으로 다가와 시인의 속을 까맣게 태운다. 오랑캐 세상으로 변하더니 문명도 종말을 고해 암울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시인은 ‘태양도 빛을 잃고 세상이 온통 컴컴하다.’라고 형상화 했다. 기상의 이변을 바라보며 세상이 어지러울 것을 직감한다.

봉창문 닫아걸고 괴이한 바람이 몰고 온 우국의 모티브를 차단하고, 은거의 안온함을 막걸리 한말에 의존한 채, 휘몰아치는 북풍 바람에 웅크리고 앉은 오두막에서, 이 불안한 우국의 정을 소박한 정취로 너머 보려는, 큰 선비의 달관과 초월이 엿보이는 시이다.

45) 『杜谷集』 권1, 「怪風」

聞道腥塵漲塞邊	국경 지방은 피비린내가 진동 한다네
中州發卒枉騷然	중원은 군사동원으로 매우 시끄럽구나
妻兒父母哭相送	처자식 부모와 통곡하며 서로 전송하니
消息死生那得傳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어이 들으랴
草白寒沙風自怒	풀도 없는 찬 사막의 북풍이 울부짖고
雲屯古戍月空懸	구름 가린 옛 성터엔 부질없는 달빛만
君王既是事珠玉	군왕은 지금 보물이나 챙기면서
何使吾民勞苦偏	어찌라고 백성들만 들볶아 대는 고 ⁴⁶⁾

국토의 변방은 오랑캐에게 짓밟히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난리를 묘사하는 장면에 처참한 아픔이 느껴진다. 국경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한창이고, 나라 안의 고을에는 군사 동원령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전쟁 중에 처자식과 부모의 생이별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별의 아픔, 전쟁의 참혹한 정황을 형상화 하였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성난 북풍과 옛 성터의 부질없는 달빛만 전쟁의 참화 속에 있다. 頸聯의 對句가 시의미를 다듬는다. 군왕은 보물만 챙기고 백성들만 들볶아 대는 것에 대해 풍자의 예리한 칼날을 휘둘렀다.

두곡의 작품에는 이런 작품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를 짓고는 태워버렸다는 시들이 대부분 이런 시들이 아닐까? 정치를 비판하고 군왕을 비난하는 시는 당시에는 어려운 것이다. 장부의 강한 기개가 느껴지지만, 동시에 피난하고 은거 해야만 선비의 아픔에 한계도 느낀다.

國本今焉著	나라의 근본을 지금 어이 다지랴
燈膏奈自煎	등잔은 어찌하여 스스로 태우려고
悄然興一慨	서글픈 한탄을 한바탕 하고는
揮策暮山邊	말채찍을 휘두르며 저녁 산굽이를 지난다. ⁴⁷⁾

46) 『杜谷集』 권2, 「出塞」

47) 『杜谷集』 권1, 「漫吟二首」

자기를 희생하려는 정신이 없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는가? 스스로를 태워서 붉을 밝히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자신도 조국을 위해 불태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말 위에서 전쟁 중인 조국 현실을 비판하며 한탄하고 있다.

自許好男子	멋진 남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誰知逢此時	누가 이런 때를 만날 줄 알았으리오
摧心天北極	북쪽 하늘 끝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痛哭地東陲	동쪽 땅 끝에 와서 통곡하노라
禮儀吾曾學	예의를 나도 일찍이 배웠지만
綱常國已隳	강상은 나라를 이미 무너뜨렸네
如何孔聖語	어찌서 공자님은 세상을 한탄하며
歎世欲居夷	동이에 살고 싶다 말했던고 ⁴⁸⁾

두곡은 스스로를 잘난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온전하게 태어나기도 어렵다. 그러나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러나 때를 만나기란 더더욱 어렵다. 북쪽 끝 오랑캐 청나라 땅을 보며 통곡하고 나라의 강상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 공자는 왜 동이에 살고 싶다고 했는가? 성인도 잘 못 말할 때가 있는가? 두곡은 청나라 세상이 된 것을 문명의 종말로 받아들이며 우국의 정을 한탄한다.

두곡은 때때로 당과 싸움에 깊이 빠진 잔인한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었다. 다음의 시는 모기를 우화한 시이다.

嗟爾爲生太細微	아 너는 사는 것이 너무나 은미하여
備名三百亦能飛	삼백이름에 들었고 또한 날 수가 있으니
中宵聚族殊無忌	밤이 되면 때로 몰려 못하는 것이 없다가
當午逃形小有知	낮이 되면 숨어버려서 있는 줄도 모르네.
毒蠅幾胎身上苦	독침으로 사람 몸을 얼마나 물었는가

48) 『杜谷集』 권1, 「漫吟二首」

貪心忘却掌中危
蒼蠅蚤蟲同情性
傷害吾人類若斯

탐욕 때문에 손바닥의 위험을 잊는구나.
쇠파리, 벼룩, 이, 들도 너 같은 성격이니
우리 사람을 해치는 무리들도 똑 같도다.⁴⁹⁾

당대 사대부들의 저열한 당파싸움을 모기에 비긴 우화시이다. 삼백 가지 미물들을 기록한 책에 갖추어진 모기를 묘사하면서 역사에 기록된 악랄한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밤에 은밀히 모여서 상대편을 해치는 나쁜 모의를 하고 낮이면 흩어져서 신분을 숨기고 관료생활을 하며, 마치 모기같이 당파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선비들을 우의하고 풍자한 시이다. 홍우정은 개를 우의하여 시대를 비평하는 우화시를 짓기도 하였다.

余畜四大犬
乃知犬爲情
常時若與善
見食必鬪爭
余故以爲戒
不敢投以骨
願犬莫相害
夜吠防盜賊

나는 네 마리의 개를 기른다
이에 개의 정이란 것을 안다.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다가도
먹이를 보면 반드시 싸우더라.
내가 이 때문에 경계를 삼기위해
감히 뼈다귀를 던져주지 못하노라.
원컨대 개들이여 서로 해하지 말고
밤이 되면 짖어서 도둑이나 지켜주게.⁵⁰⁾

이것은 이권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정치판을 개에 비유하여 우의한 우화시이다. 왜 네 마리 인가? 이것은 사색당파를 의식한 듯하다. 당파 싸움에 몰든 정치 관료들을, 먹이를 두고 싸우는 개들에 비유했다. 당파 싸움에 골몰하지 말고 변방의 도적들을 막는데 힘쓰라는 충고로도 들린다. 홍우정은 우국의 정을 읊은 시들이 많이 존재 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를 짓고는 불태워 버린 것들이 많아서 그의 시에 대한 양은 가늠하기

49) 『杜谷集』 권1, 「蚊」

50) 『杜谷集』 권4, 「犬」

가 어렵다. 홍우정은 종종 우국의 정을 노래하며 북쪽하늘을 겨냥한다.

홍우정의 한시 에는 우국의 정과 잘못된 정치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시들이 자주 발견된다.

3) 은거의 정취와 鄉愁

홍우정은 어지러운 정치판에 벼슬살이하는 동료들에게 차라리 吏隱의 길을 가기를 바랐다.

藏身未必爲眞隱	숨는다고 반드시 眞隱이 될 필요는 없네
爲報須知吏隱名	吏隱이란 이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게. ⁵¹⁾

홍우정은 金星伯이란 인물과 교류하고 있었다. 이 시의 詩眼은 ‘吏隱’에 있다. 홍우정은 저자거리에 숨은 市隱 도연명을 염두에 두었거니와, 조부 洪可臣이 부여 낙화암 부근에 吏隱臺를 짓고 때때로 학동들을 데리고 소요하며 자적했던 사실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이다.⁵²⁾ 두곡은 은거의 처세를 두고 반드시 자기처럼 고통스럽게 은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벼슬을 하면서도 은거의 정취를 취하며 살아가라는 충고로도 들린다. 그는 할아버지 홍가신의 ‘吏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종종 은거생활을 숭회하는 시를 남기고 있다.

貧居乏人力	가난하게 살아가니 인력도 부족하고
籬落依山林	울타리는 산림에 의지한다오.
門靜斜陽裏	쓸쓸한 대문에는 석양이 기우는데
庭幽春鳥吟	그윽한 들에는 봄새가 지저귐다.

51) 『杜谷集』 권1, 「漫吟二首」

52) 李玄逸 『葛庵集』 제29권, 諡狀,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 崇政大夫 行刑曹判書 五衛都摠府都摠管 寧原君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 世子傳 寧原府院君晚全洪公諡狀」, “… 作小屋落花巖畔 榜曰吏隱 時從一二學子逍遙以自適 …”

芳樽扶老病 아름다운 술에 늙고 병든 몸 의지하고
 短髮賴巾簪 짧아진 머리 두건에 의지한다오.
 異代陶元亮 시대는 다르지만 아마도 도연명이
 平生同我襟 평생 나의 옷깃과 같았으리라.⁵³⁾

홍우정이 은거를 결심하며 세상을 등진 체념 속에 가난은 어느 정도 기약된 일이었다. 그는 애써 은거지의 자연미를 느끼며, 소박한 삶을 통해 도연명과 같은 삶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은거생활의 고난과 역경을 도연명에 비견하여 초월하려는 의지를 시로서 술회하고 있다.

何處白帘新酒熟 깃발 꽃힌 어느 술집에 새 술이 익었는고
 葛巾頭上可堪醜 머리 위의 갈건으로 술 거를 수가 있다오.⁵⁴⁾

도연명의 환생인가? 두곡은 도연명을 흠모했다. 홍우정의 시구 중에 또 다른 명구이다. 시름을 푸는 데는 술이 최고다. 홍우정은 술과 시로 은거의 생활을 감당해 내고 있었다. 두건으로 술 거르며, 녹주건을 쓴 도연명의 모습이 떠오른다. 두곡의 시에는 도연명을 동경한 시들이 상당량 발견된다. 도연명이 그랬듯이 술 좋아하는 두곡 역시 술에만 뜻이 있지 않았다.

<상략>

誰知天宇濶 누가 우주가 넓다고 했나
 可奈一身輕 이 한몸 건사할 곳이 없다네.
 古今茫茫裏 아득한 고금의 역사를 훑으며
 英雄個個名 영웅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리라.⁵⁵⁾

<하략>

53) 『杜谷集』 권2, 「幽居述懷」

54) 『杜谷集』 권2, 「郊居」

55) 『杜谷集』 권2, 「忽忽」

杜谷은 준비가 덜된 은자였다. 갑자기 망한 명나라 병자호란으로 당하는 치욕으로 급작스럽게 은거를 표방했지만 어떻게 은거 생활을 할 것인지는 생각에 없었다. 중국 고급의 은자들의 생활을 틈아 가며 은거의 명분과 삶을 살아야 했다.

도연명처럼 세상을 버리고 술 마시며 시름을 잊을거나, 두보처럼 우국의 정과 고독과 향수를 아프게 노래하며 떠돌아 볼거나. 홍우정은 옛날 고사에 나오는 백이숙제, 상산사호, 엄자룡, 노중련, 등 중국의 기개 있는 산림처사들을 떠올려 보았을 것이다. 특히 전국 시대 齊나라 학자로, 秦나라가 魯국을 병합하는 데 반대하여 제후를 설득하면서 진나라가 만일 천자국이 된다면 자신은 차라리 동해에 빠져 죽겠다는 노중련을 떠올리며 홍우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명나라를 멸한 청나라가 만약 세상을 지배한다면 차라리 동해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을까? 홍우정은 동쪽 끝에 와서 청나라 세상이 된 것을 통탄하고 있다.

홍우정은 두보처럼 전란 속에서 향수병을 앓고 있었다. 노을을 보며 노스텔저의 아픔을 노래한 적이 자주 있었다.

幾作鄉關夢 그리운 고향 꿈을 얼마나 꾸었던가
長尋故國程 길이 고향 가는 길만 찾아 헤매누나.⁵⁶⁾

臨水更思歸 강가에 임하여 또 고향을 생각하노라
久客誰無淚 오래된 나그네 누구인들 눈물이 없겠는가.⁵⁷⁾

누군들 고향 땅을 생각하지 않으리오. 두곡의 시에는 종종 思鄉의 그리움에 빠져 고독한 향수를 노래한 시가 발견된다. 은거 생활로 고독에 지치고 향수에 지친 외로운 나그네의 그 한스러운 삶의 궤적이 시에 오롯이 나타난다. 두보가 나라를 잃고 방황하며, 그 고독과 사향, 그리고

56) 『杜谷集』 권3, 「春日偶懷」

57) 『杜谷集』 권3, 「秋日鄉思」

그 쓰라린 우국의 정을 노래했듯이, 홍우정도 산간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홍우정의 시는 통한의 문학이었다.

V. 결론

이상으로 두곡 홍우정의 생애와 그의 은둔사상과 문학세계에 대해 살펴 보았다.

大明天下無家客	대명 천하에 집 없는 나그네요
太白山中有髮僧	태백산 산 중에 머리 기른 중이로다

이 시구 하나로 시인이자 은자로서 절의를 드러내어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홍우정. 그의 파란만장한 은거 생활을 두고, 유교의 의리로 평가하여, 세상에서는 그를 춘추대의를 지킨 숭정처사로서 칭송을 하게 되었다.

홍우정이 살았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다. 홍우정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유가경전을 익히고 실천하였으며, 가정에서부터 문학수업을 받고 자란 훌륭한 자질을 갖춘 문인이었다. 그의 소년 시절 시 한편을 보고 당대의 명신 최기가 자기의 딸과 결혼을 결정할 정도로 그의 시는 세상에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의 이상은 당파싸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의 장인 최기의 해주옥사사건으로 8년 동안 곤욕을 치른 홍우정은 벼슬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다. 홍우정의 학문적 경향은 유학이었다. 조정에서는 그를 벼슬로서 초빙했지만 모두 거절하고, 명나라가 망하자 춘추대의를 표방하며 은자의 길을 택했다.

두곡 홍우정이 교유한 인물로는 元斗杓, 李澣 등의 은거이전 인물들과 은거이후 소위 ‘太白五賢’으로 칭송되는 遜遇堂 洪錫(1604~1680), 泡

翁 鄭澐(1600~1668), 潛隱 姜怡(1602~1671), 覺今堂 沈長世(1594~1660)를 비롯하여, 金應龜 蔡聖龜, 權尙遠, 林端, 趙又新, 등과도 시문을 주고 받은 것이 발견된다.

그는 은거생활을 하며 도연명을 흠모하고 두보를 사랑했으며 이백을 동경했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의 기개 있는 산림처사들을 엿보았다.

그의 시에는 우국애민의 선비정신과 은거의 절의가 함의되어 있고, 은거지 봉화 태백산 자락의 정취에 자족하려는 새로운 자연미의 발견이 들어 있었다. 시대를 아파하고 비판하는 정의가 살아 숨쉬고, 체념과 달관, 초월과 인내의 정서가 담긴 은거의 정한이 넘쳐나고, 우국의 정과 향수의 고독, 이별의 정한 등, 비분강개한 사나이의 한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는 미수 허목이 말한 대로 卓犖奇偉하고, 權愈가 말한 대로 준결한 멋이 있으며, 심장세가 말한 대로 飄逸의 풍격이 있었다.

그의 문학세계에는 전아한 품격과 고문의 심오하고 낮은 세계로 인도하는 묘한 미의식이 들어있었다. 그의 산문의 세계는 간략하지만 예리하고 깊은 정취가 있고, 고문의 정취가 풍기는 멋이 있었다. 그의 산문 세계 역시 卓犖奇偉의 품격과 俊潔한 멋이 있다. 산문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앞으로 두곡 홍우정에 대한 은둔과 문학세계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論語』

『光海君日記』(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仁祖實錄』(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英祖實錄』(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金尙憲, 『淸陰集』(한국문집총간 77집)

李象靖, 『大山集』(한국문집총간 226~227집)

李 瀾, 『星湖僊說』(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李玄逸, 『葛庵集』(한국문집총간 127~128집)

許 穆, 『記言』(한국문집총간 98~99집)

洪宇定, 『杜谷集』(한국고전번역원 속26집)

洪承均, 『우리말로 옮긴 두곡선생문집』, 두곡선생문집역간위원회,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Du-gok(杜谷) Hong U-jeong(洪宇定)'s seclusion and the world of literature /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Dugok(杜谷) Hong u-jeong(洪宇定;1593~1654)'s seclusion and the world of literature. He began to show outstanding ability literature and Confucian texts in his childhood. He was a man of promise. But his dream is to be a factional fighting was foiled in the gate. He had been imprisoned down there for years. He then gave up the bureaucratic dream. Hong Taiji invaded Joseon again from December 1636 to January 1637 (the Second Manchu Invasion). This war is known as the Second Manchu Invasion, or "Byungjahoran(丙子胡亂)" in Korean. The war displaced the whole family to the Bonghwa-gun(奉化郡) Munsu-san(文殊山). After the war, the refugees sent home. But Hong u-jeong was charmed by the scene in that Munsu-san Du-gok(杜谷) stayed the same. Chongzhen Emperor's servant(崇禎處士) he is against the Qing Dynasty when the Qing Dynasty and perish is Ming went into the sequestered ourselves we advocate. At that time, meanings such as so-called TaebaekOhyeon(太白五賢) said they were reclusive people. They are poetry and whiled away the sequestered ourselves to keep company with tough sentence. He left a lot of poetry and prose by life in seclusion. His poetry and prose in patriotism and filial affection and allegedly contains bitter about life and thought his hometown. His poetry and prose, Tao Yuanming and Tang Lee Tae-baek and Du Fu and hiding the losing country, including poets of ancient China's wander and pain has been copied. What he poetry and prose is full of other implications and Landscape scenery and lyric of

*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 ilovestudent@hanmail.net

retirement. He was a national hero. He ranges with the great writers.

【Key words】 the Dugok(杜谷) Hong U-jeong(洪宇定),
Byungjahoran(丙子胡亂), Chongzhen Emperor's
servant(崇禎處士), TaebaekOhyeon(太白五賢), world of
literature, life in seclusion

투고일 : 11월 23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게재확정일 : 12월 12일